

# “삼문화·전통주 등 한식 제대로” 파리·런던서 ‘한국의 맛’ 알린다

농식품부, 우수 한식당 3곳 지정  
국산 식재료 사용 ‘삼식·지음·솔잎’  
전통 활옷·소품 등 인테리어 접목  
현지인·방문객 등 대상 한식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3일 파리·런던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3곳을 ‘K-미셰린’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파리 소재 삼식(SAM CHIC) 한식당의 모습. /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2일 ‘해외 우수 한식당’에 유럽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파리에 자리한 삼식(SAM CHIC), 지음(JIUM)과 런던의 솔잎(Solli p)이다. 런던(영국) 소재 음식점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7월26일 개막)을 염두에 둔 발표이다. 이들 3개 음식점은 파리 현지인·방문객을 상대로 한식 홍보에 힘을 보태게 된다.

‘삼식’은 바비큐와 삼문화를 테마로 운영되는 한국식 구이 전문점이다. 된장 및 멸치액젓을 비롯해 복분자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박솔녀 장인의 전통 활옷과 한국적 소품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지음’은 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무청시래기, 건토란대, 초정쌀엿과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한국적 맛과 식기 사용, 서비스에서 현지인들 사이 호평을 받는다. ‘솔잎’은 한식을 모티브로 한 요리에 양식

의 조리법과 담음새가 조화를 이루는 퓨전 한식 파인다이닝이다. 한국산 쌀, 매생이, 오미자, 잣, 다시마,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한국 전통주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을 제공한다.

지난해 지정된 한식당 13곳의 경우 국제적 미식 평가 상승, 현지 언론 관심

증가와 매출 증대, 자긍심 고취 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이들 13개 한식당은 ▲뉴욕(6곳)의 정식, 윤해운대갈비, 아토믹스, 꽃, 수길, 주아 ▲파리(5곳)의 순그릴마레, 종로삼계탕, 이도, 삼부자, 맛있다. ▲도쿄(2곳)의 하수오, 윤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품격 높은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류를 대표하는 한식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성장과 발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순환경제·탄소중립 기여할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립 24주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2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비롯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출발해, 지난 2000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야생화단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홍보관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병익 공사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과 공

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 표창과 모범사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또 공사 운영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퇴직자동우회 대표 등을 초청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공사는 앞서 지난 17일 각종 정보를 수록한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난 1992년 제1매립장 사용 이래 지난해 제3-1매립장 사용까지 32년간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자원·에너지 생산량, 주민지원사업 및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이용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연감은 공사 누리집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SGI서울보증, 中企 대상 팩토링 공급 확대

‘中企 공급망금융 지원 확대’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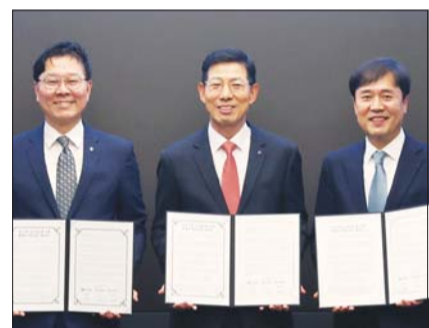
SGI서울보증은 지난 19일 신한은행, 테크핀레이팅스와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을 돕고자 추진됐다.

SGI서울보증은 원활한 매출채권 매입을 위해 미회수된 매출채권 상환채무를 보장하는 상업신용보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유 중인 매출채권을 매입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온라인 매출채권 팩토링 플랫폼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모든 팩토링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대기업 중심의 팩토링 시장에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매출채권 부도위험을 판매기업에서 금융기관 관리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SGI서울보증은 테크핀레이팅스와의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실시간 회계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더존셀티타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심성보 SGI서울보증 운영부 문장(왼쪽 두번째)과 이수환 신한은행 디지털 솔루션그룹 부행장(왼쪽 첫번째), 옥형석 테크핀레이팅스 대표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및 상거래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관련 상품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성보 SGI서울보증 운영부문장은 “SGI서울보증이 파트너사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주주, 고객, 사회,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신용 파트너(Best Credit Partner)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외식산업 살리기… 할당관세 품목 확대”

송미령 장관, 외식산업 산·학 간담회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등 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이 비용 증가 및 소비 둔화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책으로, 수입산 식재료 관련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을 비롯해 음식점업 외국 인근로자(E-9) 시범도입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에서 외식산업 산·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외식산업은 식재료비·배달비 등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외식 업체들도 많은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식품 원료 할당관세(들여오는 수입산 중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 적용)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에 37개로 늘린다. 또 내년 말까지 커피 등에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한다.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도 10%포인트(p) 상향한다. 아울러 외식업체육성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정보, 굽네치킨, 이연FNC(한촌설렁탕), ㈜보하라(남다른감자탕), 학계(경희대, 세종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대성무역, 하도급대금 미지급 3.6억 과징금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흡소핑의류 판매사업자인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4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흡소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

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약 7억원 중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입고 샘플 컨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안전보건공단 “산림산업 종사자 재해감축 노력”

산림청과 안전문화 확산 등 협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림청과 산림사업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사업은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 재해자 및 10명 내외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위험 작업이 많은 고위험 업종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한 분야인 것.

업무협약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

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한다.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단과 산림청 산림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